

광주 동명동 동리단길 주차난 해법 없나

공영주차장 만차에 전면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차 전면 ACC부설 주차장 개방 실효성 부족...신설 공간 확보 시급

광주 도심 명소에 손꼽히는 동명동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인근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주정차가 전면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차량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인근 부설 주차장 개방만으로 주차난 해소 등 실효성이 부족하며 카페의 거리 보행환경 조성공사에 앞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오전 11시40분께 동명동 인근 석곡교회·광주중앙도서관·동명동 공영주차장. 이 일대는 점심 식사를 위해 찾는 시민들로 이미 만차 상태였다.

혹시나 빈 자리가 있을까 하고 이곳에 들어온 차량은 주차장 내 통로마저 침범한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동명동 내부를 한참을 돌아도 주차 공

간이 마땅치 않아 결국 일부 운전자들은 최근 주정차가 전면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를 두고 내리기도 했다.

이날 저녁 다시 찾은 동명동 내부는 거리 곳곳에 차량이 주차된 탓에 이를 피해 운전하는 차량과 오가는 시민이 뒤엉키며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에 시민들은 두면 안 되는 곳에 차를 두는 이들도 문제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오모(28)씨는 "동명동은 볼거리·먹거리 모두 좋지만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차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보행로나 경관 개선으로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임모(34)씨도 "회사 동료들과 대부분 점심과 저녁을 이곳에서 해결하



27일 광주 도심 명소에 손꼽히는 동구 동명동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 21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적이 손에 꼽는다"며 "인근 ACC 주차장을 이용하려

해도 옥의 주차장 입구가 늘 닫힌 상태라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도통 모르겠

다"고 토로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동명동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년 단위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약을 맺어 ACC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ACC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3년 2월까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교육 시설 조성공사 차량과 자재 출입을 위해 옥외공간은 개방되지 않는다.

현재 동명동 내 식당·카페·문화공간 등 209개소가 ACC 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이용객들은 ACC 부설 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옥외 주차장 출입구가 닫혀있고 지하 공간만 개방된 실정이라 동명동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해소 등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동구청 관계자는 "동명동 내 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132면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추후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주거지 공영주차장을 신설, 5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며 "동명동 주차난 해소 및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2염전노예?...경찰, 신안 임금체불 수사

염전주사기 혐의 입건...경찰 "구타 등 폭행 정황은 없어"

경찰이 최근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수사가 나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분청과 지역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장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모(53)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박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생활 감시와 폭행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임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 기망, 갈취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거나 감금 등 폭행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2014년 2월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유괴해 감금하고 강제로 집단 노동을 시켰던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시가 누그러진 틈을 타 어머니를 통해 지역이 아닌 서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소금 장수로 위장해 섬에 잠입해 피해자들

을 구출하면서 당시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장애인 불법 고용 실태조사 등 염전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서 수사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편,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차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박씨는 7년 동안 연말이 돼도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염전주는 박씨와 은행에 동행해 박씨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준 뒤, 박씨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바로 다시 염전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찰,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14명 검거 영장신청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31)씨 등 14명 조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2017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60여 차례의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11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누리집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계좌 정보 등을 빼돌려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검거한 1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향후 수사를 확대해 추가 공범 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여중생에 '성희롱 발언' 혐의 교사 2심도 무죄

법원 "학생 진술 신빙성 낮아...오해 가능성 배제 어려워"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 여자 중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15일 오후 4시40분께 교실에서 학생 B양과 일대일 면담하던 중 B양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B양에게 '성욕 불만이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사실에 반하는 진술도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동수기자

1심은 "당시 일부 학생들은 A씨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A씨가 다른 학교에서 성 비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옮겨오게 됐다든 오해까지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돼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탕을 빨고 있는 B양에게 '욕구 불만 있느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이에 비춰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B양이 이 같은 말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수기자

"돈 달라" 흥기로父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돈을 달라'며 아버지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

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제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위로 80대 아버지 B씨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어머니 C씨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을 엮어 그릇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술에 취해 버스 승강장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다음 달 8일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김동수기자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